

징검다리부터 대형교량까지, 다리에 담긴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다시, 오래된 다리를 거닐다

이영천 지음

'노두(路頭)'라는 어휘가 있다. 나루터나 징검다리를 이르는 전라도 방언이다. 신안 암태도 주변에는 노두를 만든 흔적이 많다. 썰물을 이용해 짧은 거리의 갯벌을 건너기 위해 만들었던 장치다. 여러 노두 가운데 특히 암태도와 추포도를 잇는 노두가 으뜸이었다.

지금과 같은 연륙교가 있기 전 섬 주변에는 그렇게 징검다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암태도 가는 길은 '다리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리 위용이 만만치 않다. 목포에서 암태도, 암태도에서 암태도 가는 길에서 만나는 '닐손로제야치교', '1004대교'의 위용은 볼 만하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끊임없이 길을 개척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감하고 저돌적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다리'다. '이음'과 '매개'를 상징하는 다리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 시료서뿐 아니라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됐다. 오늘날에는 문명과 문명을 잇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층적인 의미로 수렴된다.

다리에 얹힌 역사를 다룬 책 '다시, 오래된 다리를 거



닐다'는 숨은 역사를 따라 걷는 내밀한 이야기다. 저자는 공학에 바탕을 두고 인문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이영천 작가. 그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으며 인문학이라는 심미안으로 삶과 역사를 바라본다.

"하나의 시설물로서 다리가 놓이게 된 사유와 과정, 그 속에 담긴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다. 이 책은 다리가 발달되어 온 순서대로 숨은 이야기를 찾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때론 삶의 애환을 그릴 것이고, 때론 역사 속에서 저절로 낱알을 말할 것이다."

저자가 책을 쓴 이유다. 세세하고 작은 역사가 큰 역사를 아우르는 부분까지 나아간다.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옛 다리에 초점을 맞췄으며 2부는 근현대 다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1부에서는 추포 노두길을 비롯해 단종의 뉘를 기리는 주천강 쌍 섬다리,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진천 농다리,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을 취한 경복교 취향교, 누각을 품은 이채로운 아름다움이 빛나는 태안사 능파각 등을 만난다.

주천강 쌍 섬다리의 내력은 이렇다. 숙종 24년(1698) 11월 6일자 실록은 "노산군을 단종으로 묘호는 장릉(莊陵)으로, 그의 비(妃)는 정순(定順)으로 묘호는 사릉(思陵)이라 정하여 시호(諡號)를 추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단종은 사후 약 250년 만에 왕 지위를 찾았고, 조정은 1699년 장릉을 보수하고 수리한다. 그리고 조정은 강원 관찰사에게 참배하라는 명을 내린다. 관찰사가 주천강에

서 섬다리를 만났는데 낚은데다 흙 썩다 리였다. 백성들은 단종에게 배향하는 관찰사임을 알고는 주천리와 신일리에 각각 섬다리를 하나씩 만든다. 두 개의 섬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곡성 태안사 능파각은 다리 위에 누각을 얹은 형태다. 능파각은 수수하면서도 단아한 여인네의 모습을 닮았다. 전체적으로 붉은 색이지만 안쪽의 푸른 단청은 청연하고 맑은 느낌을 자아낸다.

2부 처음은 수말의 아픔을 간직한 군산의 뜬다리부두다. 이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번성했으며 일제의 수말이 자행됐다. 인근 재보선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비극이 잉태됐으며, 한편으로 독립을 향한 저항정신이 발현되기도 했다.

진도대교가 지나는 울돌목은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역사의 당당한 물길 위로 유려하게 뻗어 있는" 다리에서는 멋진 풍광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역사의 버거운 무게를 떠안은 한강철교, 친일파 투기꾼 때문에 생겨난 광주 금강철교, 분단의 상흔을 오롯이 품은 철원 승일교에 얹힌 서사를 만나는 일도 자못 흥미롭다.



지네 형상을 닮은 충북 진천 농다리.



2부 처음은 수말의 아픔을 간직한 군산의 뜬다리부두다. 이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번성했으며 일제의 수말이 자행됐다. 인근 재보선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비극이 잉태됐으며, 한편으로 독립을 향한 저항정신이 발현되기도 했다.

진도대교가 지나는 울돌목은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역사의 당당한 물길 위로 유려하게 뻗어 있는" 다리에서는 멋진 풍광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역사의 버거운 무게를 떠안은 한강철교, 친일파 투기꾼 때문에 생겨난 광주 금강철교, 분단의 상흔을 오롯이 품은 철원 승일교에 얹힌 서사를 만나는 일도 자못 흥미롭다.

이밖에 역사의 버거운 무게를 떠안은 한강철교, 친일파 투기꾼 때문에 생겨난 광주 금강철교, 분단의 상흔을 오롯이 품은 철원 승일교에 얹힌 서사를 만나는 일도 자못 흥미롭다.

〈루아크·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전 암태도의 추포 노두길은 바다에 놓인 징검다리로 유명했다.

겨울

엘리 스미스 지음, 이예원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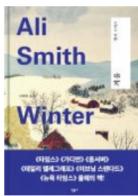
소피아 클리브스는 성공한 중년 여성이다. 똑똑하고 세상에 밝은 그녀에게 아트는 애정으로 불리는 아들이 있다. 둘의 관계는 항상 어색하고 지엽적이지 않다. 크리스마스에 아트는 반려자인 살럿을 데리고 소피아의 집을 찾아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아트는 사실은 살럿과 헤어진 상태. 자신이 냉철한 중립자라고 믿는 아트의 이기적인 발언과 행동에 사회 참여적이고 헌신적인 살럿이 분노를 터뜨리고 떠나버렸다. 언제부터가 어머니 소피아의 상황도 꼬여간단. 최근 들어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유령의 머리가 보인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우며 그녀 곁을 결코 떠나려 하지 않는 머리통이 환영처럼 보인다. 결국 그녀는 다정한 유령머리를 받아들여준다.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엘리 스미스의 장편소설 '겨울'이 출간됐다. 소설은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격변을 겪은 후 엘리 스미스가 영국 사회 현재를 담아내기 위해 쓰기 시작한 '사계절 사부작'('가을', '겨울', '봄', '여름')의 두 번째 권이다. 사계절 사부작은 발표될 때마다 부커 상 후보에 오르거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다.

작가의 사계절 사부작은 영국이 브렉시트 시대에 진입하며 마주한 여러 질문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된 지금의 영국 사회는 일찍부터 인종 차별 문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제는 그 여파로 이민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공공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가는 인종 차별, 여성 혐오, 성소수자 인권 등의 사회 문제와 영국이 직면한 모순의 맥을 세련되고 섬세하게 풀어간다.



〈민음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I 시대의 일자리 트렌드

취청·천웨이 지음, 권용중 옮김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하신가요?"

인공지능(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상황, 반복적이고, 위험하고, 번거로운 일은 AI가 대신할 수 있다. 공학에는 셀프 체크인 기계가 많아지고, 중국 물류창고에는 선별로봇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기업 인력자원부는 AI 제품을 이용해 응시자의 이력서를 읽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고, 집에서는 영유아 조기교육 로봇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최근 AI로 인해 도태될 직군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확고히 하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인터넷 마케팅 및 경영 전문대학원 특별초빙교수 취청과 타이구 컴퓨터 시스템 주식회사 회장 천웨이가 쓴 'AI 시대의 일자리 트렌드'다.

대다수 전문가와 학자는 AI가 기술 수준이나 급여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자들은 재무 담당자, 의료계 종사자, 고위 관리직 등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급여 수준이 높은 일자리 역시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밝힌다.

책은 'AI, 실업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인가 취업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인가?', '업무에 도입된 AI,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 'AI와 조직경쟁', 'AI와 실무 종사자' 등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적, 법조계, 의료, 금융업, 교육계, 마케팅, 제조업, 전자상거래, 프로그래머, 농업,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되면 업무 형식과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우리 각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회를 활용해 앞서 나갈 수 있는지도 제시한다.



〈보아스·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저 양심이 없을 뿐입니다

마사 스타우트 지음, 이원천 옮김

무섭거나 사악해 보이지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감정의 약점을 파고들어 타인을 조종한다. 거짓 친절과 동정을 이끌어내는 연극에 능해 커리어는 오히려 성공적인 경우도 많다. 연인을 파멸시키거나 동료 경력을 망치거나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기고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못 느낀다. 양심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있는 '소시오패스(sociopath)' 이이다. 25명 중 1명이라는 소시오패스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존재한다.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심 없는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있을 확률이 높다.

최근 소시오패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그저 양심이 없을 뿐입니다'가 출간됐다. 책은 교묘하게 남을 조종해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소시오패스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지침서다. 저자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저자이자 하버드 의과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마사 스타우트 박사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평생을 빌붙는 한량 배우자부터 자식에게 관심 없으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싶어 면접권을 주장하는 이혼한 전 배우자, 악랄한 방법으로 형제자매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아이, 은밀한 공간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 폭력범, 권위를 내세우며 아무렇지도 않게 비리를 저지르는 성직자나 의사·경찰관 등 전문가, 일면식도 없으면서 SNS에서 사이버 폭력을 휘두르는 자 등 20여가지의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법이 담겨 있다.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업과 정부에 존재하는 소시오패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양심과 사랑, 연대의 중요성을 되짚는다.



〈사계절·1만7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9월10일 OPEN

첨단 연제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Yeonje

1661-4470

확실히 확실히!

다른 투자 가치와 미래형 첨단 업무시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과 다양한 세제혜택! 10만여 배후수요를 가진 고품격 프리미엄 오피스!

분양가 9,900만원의 프리미엄 오피스

실투자금 1,000만원이면 나도 건물주

다양한 세제혜택 (재산세, 취득세 감면)

주택수 미포함 (대출 최대 90%까지)!!

첨단 연제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1661-4470

비양향보관: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중앙로 110 (서평동 1213번지) 우체국보통우편 1층